중소기업 자금난 지원 사격 나선다

전북은행, 추석 특별운전자금 2000억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및 당행 영업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신규 1천억원, 만기연장 1천억원으로 총 2천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상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업체당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1.0%~1.5%를 감면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번 추석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지속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유동성 부족, 매출 증가에 따른 부족자금 결제, 종업원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에 양질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국 칭다오 내 '한국농수산식품물류센터'가 4년만에 최고 가동률을 기록하며 농식품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농식품 물류허브로 '우뚝'

칭다오물류센터, 운영 4년만에 최고 가동률 기록

사드 여파로 주춤했던 우리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이 지난해 약 1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6%나 성장했다.

중국 칭다오 내 '한국농수산식품물류센터(이하 칭다오물류센터)'도 4년 만에 최고 가동률을 기록하며 농식품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설립한 칭다오물류센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가동률 73.8%를 달성했다.

칭다오물류센터는 건축면적 13,669㎡(약 4,142평) 규모로 '상온, 냉장·냉동'으로 구분보관이 가능해 주요 수출품목인 포도, 버섯, 신선우유 등 신선제품의 보관과 유통에 용이하다.

칭다오물류센터로 입고되는 물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영 첫해인 2015년 입고량은 7,744톤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199톤으로 4년 만에 19% 가까이 증가했다.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현지 수입바이어도 10개사에서 30개사로 늘었다.

칭다오물류센터에 도착한 한국 농식품은 중국 내륙 지역으로 운송을 위해 일정기간 창고에 보관되며 7~30일이 소요된다.

이때 발생되는 보관 및 입출고 비용의 10~30%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수출업체의 유통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aT는 칭다오물류센터를 통해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중국국가표준(GB) 및 성분검사, 라벨링, 상표권 출원, 위생증 발급 등을 돕는 '중국 One-Stop 수출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7개 국내 수출업체의 통관을 지원했으며, 30만 달러의 수출 거래 알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아울러 aT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19개 도시에 콜드체인 운송망을 구축하여 수출 농식품의 내륙지역 이동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땅 속 물 관리로 가뭄에도 밭작물 '쑥쑥'

농촌진흥청,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중점적 자동 관개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8일 설치와 관리가 간단하고 농업 용수도 절약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중점적 자동 관개 기술 노지 밭작물에 대한 물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땅속에 관수호스를 묻어 작물의 뿌리 부근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난해에는 밭작물 재배지 1만 8400ha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했으며, 콩 농가는 평균 수량이 177kg/10a으로 전년 대비 5.8% 줄었다.

노지 밭작물 피해가 늘고 생산성 변동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노지 밭작물 재배 시 수월한 물 관리를 위한 것으로, 땅 속에 관을 묻고 작물의 뿌리 쪽에 필요한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진청은 점적호스(관)를 트랙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 매설기계를 개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주행하면서 최고 40㎝ 깊이로 점적호스를 묻을 수 있고, 매설간격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토양 속 수분 관리도 가능해 부족한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자동관개시스템도 개발했다.

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을 활용하면 노동력 부담은 덜고 물 이용 효율은 높여 농업용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스템 설치에 드는 비용은 1ha당 약 2900만 원으로, 기존의 스프링클러(1700만 원)에 비해 초기 설치비용은 더 높다.

하지만, 반복적인 설치와 철거가 필요 없어 물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 투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 기술은 기존 방식 대비 유실되는 물이 적어 농업용수가 22% 절약 된다. 또한, 무관개(2016~2018) 대비 콩은 26%, 참깨는 37% 수량이 늘었으며, 지표점적(2018) 대비 콩은 9%, 참깨는 8%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중점적 자동 관개 기술'을 남원시 등 전국 9개 시·군 농가에 각 2ha씩 조성하여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다. 시범 지역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대단위 콩 재배지인 전북 김제의 경사지에서 시험(2017~2018)한 결과, 관수 노력비 절감과 수량성 증대로 농가의 기술만족도가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개발한 관개 기술이 노지 밭작물까지 확대됨으로써 밭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태욱 생산기술개발과장은 "지중점적 자동 관개기술을 이른 시기에 보급해 밭작물 재배 시 물 관리에 드는 노동력과 농업용수 사용량은 낮추고 생산량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이민여성 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전북지역본부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1:1 맞춤농업 교육생 151명을 대상으로 후견인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1:1 맞춤 농업교육은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이민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교육과 전문여성농업인의 후견인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협력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농업교육의 효과 증대를 위한 후견인 능력 배양과 소통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마케팅 전문가 유신웅 강사를 초청해 SNS를 이용한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기법을 배우고 조석중 강사를 통해 교육생 간 소통과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유재도 본부장은 "활발한 멘토링의 활동으로 이민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한 농업인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조달청장, 전통국악기 제조 현장 방문

박수천 전북지방조달청장은 8일 정읍시 소재 전통공예품 국악기 제작업체인 석산국악사를 방문 했다.

지난 2018년 11월 거문고, 가야금 등 13개 품목의 전통국악기가 정부조달 문화상품으로 선정 됐다. 전통국악기 제조 현장 방문은 전통문화상품 제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전통문화상품 전용몰이 있어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면제해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박수천 청장은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장인들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며, "전통공예인들도 전통 보존을 넘어 현대적 디자인 도입 등 새로운 가치 창출에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문화상품은 전통적 소재, 기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으며, 정부조달 문화상품협회가 선정한 제품 또는 문화재청, 행정자치부 등 전통문화상품 및 지역향토 관련 기관의 장이 직접 추천한 제품이다. /김영태 기자

경매 진행건수 증가세 지속… 3년만에 최고치

전국적으로 경매 진행건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219건)도 200건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19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7월 전북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총 664건을 기록했다. 이 중 27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1.7%, 평균응찰자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65.6%를 기록했다.

6월 전북 경매시장은 업무상업시설과 토지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하며 전체 낙찰가율을 견인했다면, 7월에는 조정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낙찰률은 6월 대비 1.7%p 상승한 41.7%를 기록하면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주거시설의 경우 낙찰률이 전월 대비 7.2%p 증가한 44.1%를 기록했고, 업무상업시설도 3.8%p 오른 32%를 기록했다. 토지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50%대 낙찰률을 유지했으나, 7월에는 43.1%를 기록하면서 4개월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소재 병원이 48억원에 낙찰되면서 7월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 물건에 올랐다.

2위는 군산시 경장동 소재 숙박시설로 감정가의 79%인 20억원에 낙찰됐고, 익산시 팔봉동 소재 주유소는 19억원에 낙찰되면서 3위에 올랐다.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소재 전에 28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두 배 가까운 7200만원에 낙찰됐다.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소재 답과 군산시 지곡동 소재 다가구주택에 각각 21명이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공동 2위에 올랐다. /김윤상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전북농협 퇴직동인들과 간담회 가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8일 전북을 방문하여 전주시 모 식당에서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김장근 농협은행 본부장, 송춘식 전북농협 동인회장 및 동인회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농협 퇴직동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농협에 30년 이상 근무하고 전북에서 지역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퇴직동인들을 격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송춘식 동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전북농협 동인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현직을 떠났지만 농업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관심을 기우리겠다"고 말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의 농협은 과거 퇴직동인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으로 만들어 졌다"며 "농협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을 달성하여 선배님들께서 흘린 노력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 동인회는 1978년 발족했으며, 송춘식씨가 회장, 국점룡씨가 부회장으로 있으며 지역본부에 주사무실을 두고 회원수는 225명에 달한다. /김윤상 기자